

에스겔9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함을 봅니다. 그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건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임할 심판을 알지 못 하고 저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 하루 잠깐 드리는 예배조차도 힘들어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귀찮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두려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어떠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4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 까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한 기와를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성읍 예루살렘을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며 성을 향하여 운제를 세우고 성을 향하여 토로를 쌓으며 또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성을 향하여 공격형 망치들을 세우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네 얼굴을 성을 대적하여 두라 그러면 그 성이 포위 되리니 너는 그 성을 포위할 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표적이 되리라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네가 그 위에 눕는 날 수 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 날 수대로 그들의 죄악의 연수를 네게 두었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의 집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네가 그 날 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네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에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네게 하루를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예루살렘이 포위된 쪽으로 향하여 두고 네 팔을 걷어 올려 그것에 대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동이리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 까지 너는 이 쪽에서 저 쪽으로 돌리지 못 하리

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좀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면 벌벌 떨 텐데 왜 그랬을까 모세가 시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 백성을 가까이 올라오지 못 하게 하라 내가 도로 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의 꼴을 보니까 정말 꼴이 자기들 보다 더 못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신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듣느냐 뻔뻔하단 말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바울도 뭐 기도 작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볼 품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도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나오는데 사실 뭐 살아 있는 동안에 나는 아무 일도 없다 할지 몰라도 어차피 죽을 텐데 이복의 김 정일도 죽었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그거 뭐 난리를 치는지 또 그 아들이 속으로 또 내 세상이다 그래도 또 죽을 텐데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할 지라고 오래 살지 못 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걸 못 깨달아요 그것만 깨달아도 될텐데, 이렇게 못 깨달아요. 우리 시편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 하노라 네가 네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네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 17절 봅니다.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네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를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와 한 패가 되며 네 혀는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 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 인줄로 생각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
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 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주일 날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안 받고 획 뒤로 돌려 버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 즉 자기 마
음을 찌르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은 뒤로 돌려 보내요, 등 뒤로 다 내 보낸단 말 이에요. 화
살이 오면 피하는 것처럼 그걸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한다고요 자기가 좋은 것만 받
아드리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 나거든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
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나와 같은 자 인줄 생
각하였도다. 너와 같은 자로 생각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나하면 하나님도 없네 뭐 내가
이렇게 난리 쳐도 하나님도 없네 뭐 하나님이 나를 책망도 안 하네 이렇게 오늘날 이 세대에
서 마귀는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해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옛날 구약시대
엔 하나님께서는 욱을 오히려 발가벗겨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다 오늘
날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할 때 욱처럼 자기 실상을 아는 거죠 다 잃어버
렸을 때 내 몸뚱이 하나 남고 의지 할 때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그럴 때에 바로 깨닫
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쪽 보게 되면 4장 말씀에 그런 비참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또 기와를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는 기와가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기와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숲 같은 걸로 그리라고 그랬겠

죠, 그리고 아 이제 그 위에 그리고서 이제 2절에 가보면 그 성읍을 포위하며 성읍을 나무 운제를 세우고 성을 향하여 토로를 쌓으며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성을 향하여 공격력 망치를 세우라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한국도 옛날에 뭐 신라시대 백제나 고구려시대 이럴 때 보면 성을 함락 시킬 때 보면 그 운제를 가지고 바위에 달린 운제를 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돌맹이를 달아 가지고 탁하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로를 쌓았어요. 토로 성이 높으니까 흙을 막 쌓아 가지고요 막 우리 역사에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 높이 만큼 쌓는다 이렇게 쌓아 가지고 성을 막 공격하고 들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로와 운제를 세우고 토로를 쌓아라. 참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때 이 성경 읽지도 않았을텐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지 말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나무 운제를 세우고 성을 토로로 쌓고 그렇게 해서 망치를 세우라 그대로 그리라는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기와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성이 공격당하는 그 모습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징적인 거죠 실체가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야! 썸득 했을 겁니다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3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네 얼굴을 네 성벽위에 두라 그러면 그 성읍을 포위 되리니 너는 그 성을 포위할 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다 그게 뭔가하면 이스라엘을 그려놓고 성을 그려놓고 운제와 또 토로를 쌓는 것을 그려 놓고 망치를 이스라엘 성이 공격 받는 것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철판을 가져다가, 철판이 뭘니까? 철판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철판을 다 없애면 성 쪽에서 화살을 쏘면 자기들이 피하려고 철판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철판까지 가져온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사람들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너희가 함락 당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 이 철판은 그리는 게 아니라 철판은 실질적으로 그 성읍과 에스겔 사이 기왓장에 그려놨잖아요 거기하고 에스겔 사이에다가 철판을 세우라 이는 실질적으로 철판을 세우라고 그리는 거죠 실물을 세우라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이걸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집

에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란 게 뭔가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때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진짜 일어났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표적이 이런 것입니다 표적, 사람들이 안 믿죠. 사람들이 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죽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표적으로 준 겁니다. 말로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으로 준 게 있죠. 안식일을 표적으로 줬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안식일에 불을 지피거나 심지어 불을 지피려고 나뭇가지를 주어 오는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영원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표적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여기 보니까 390일을 390년으로 치자, 또 하루를 천년으로 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예요. 그래가지고 일곱째 날도 인식일이요 일곱째 달도 안식달이요 또 일곱째 해도 안식년이요 일곱째 천년도 안식천년인데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인데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얘깁니다. 너희들 그것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 준 소망은 메시아가 오서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에 조금만 잘 못 되도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이것을 몰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성경 전체를 안 배웠으니 이 사람들은 주로 다니엘서만 가지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주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좋아 하는 것만 봐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네가 그 위에 눕는 날 수 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담당할 죄를 에스겔보고 담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레위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때 염소에게 안수하고 말이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그

래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레위기서 16장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 있는 염소를 가져 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과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베로 된 의복들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요 속죄염소로 염소를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속죄제를 위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으니 누군가 진영 밖으로 옮기면 그들이 그 가족과 그 고기와 그 똥을 불로 사를지니라. 그것들을 불사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요, 그 후에 그가 진영으로 들어올지니라."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요. 진영 밖에서 잡았어요. 이는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 밖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죠. 또 한 염소는 모든 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다 갖다가 안수해서 염소보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끌고 가서 광야까지 가서 사람이 사는 데 까지 지날 땐 그냥 끌고 가다가 광야에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가서 보냈죠. 그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라 했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에 보면 또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옥을 얘기하죠, 바로 이것은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속죄일,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그 옛날 염소처럼 속죄를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대신 또 멀리 사라지는 그러한 속죄 염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 아닙니까? 죄는 북쪽이 더 많은 죄

를 지었거든요. 그들은 앗시리아와 간음했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과 간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390년이요 그다음에 유다는 4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담당하라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환란 때 나타납니다. 환란 때 탁 나타납니다. 그들은 대 환란의 고통을 격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은 휴거의 날이 아닙니다. 휴거의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날이죠. 환란에 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날이고 그 다음에 환란 때가 되면 왕국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주님도 전했고 침례인 요한도 전했죠. 그 왕이 오신다. 이제 7년 후면 왕이 오신다. 이런 얘 기죠 그래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요 그 때는 뭐 요즘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는데 왕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왕이 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왕을 기다 리지도 않는데 천년 통치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누려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은 다 환란에 넘어 가게 되어 있어요. 환란에 넘어가가지고 그 때 들은 것 진짜 왕이 온다, 회개하라. 그렇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요한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초림 때도 엘리야 재림 때도 엘리야, 그런데 초림 때는 엘리야가 요한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기 때 문에 온 세상에 전파했다. 14만 4천도 전파할 겁니다. 그들은 인을 맞았기 때문에 절대 죽 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안 죽습니다.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뭐 무섭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동정들이예요 더럽힌 자들이 아니 거거든요. 총각 숫총각들이예요 그래서 남자 처녀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버진(virgi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란에 가면 끝까지 견뎌야 되요, 못 먹어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나오죠.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더 이상 이제는 굶주리지도 아니 하고 햇볕에 타지도 아니 하고 이게 뭐죠 도망 다니면서 햇볕에 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이게 표적이 되어 가지고 그 때 가서 얼마나 통곡할지 안타까워요. 아직도 이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등잔 밑이 어둡죠. 등잔 밑에 있는 사람이 어두워요. 이게 정말 속담이 참 진리더라구 보니까 자 보면 5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날 수대로 그들 최악의 연수를 네게 두었나니 삼백구십 일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집의 최악을 담당할지니라. 앞으로 될 일이죠. 에스겔서를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은 과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이집트에 포로 생활 한거 400년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삼백구십 프라서 사백 삼십 년 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 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살았어요. 그런데 400년 종살이 했어요. 30년 동안은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대우 받았죠. 그런데 날짜만 가지고 얘기 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한 거지 옛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 예요. 옛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죠, 숫자만 같다고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자 이건 앞으로 될 일이다. 6절 내가 그 날 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네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의 최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네게 하루를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고통 받을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대략 한 주전 595년 정도 되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천 6백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때 430년을 더하게 되면 BC 160년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하면, 이 때에 안티쿠스라는 시리아 왕이 말이죠, 이 놈들이 와 가지고 막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 가지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오히려 그 자기네 신 이방신 그 주피터 신에 그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 제사가 금지되었죠.

어떻게 보면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피하는 비슷한 일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옛날에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왔을 때 마카비 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이겨 내고 그래가지고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안티오쿠스 대제가 시리아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 대통령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다마스쿠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결국 시리아도 망합니다. 아주 멸절이 된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모든 독재자들이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다 폭동이 일어 나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지금 근데 북한의 김정일은 그 분은 거기는 폭동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습니까? 왜 독재자들이 갔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니 주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포위되어 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아마도 에스겔이 다 담당하라고 그랬죠. 네가 담당하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요 여기 보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당해 가지고 430년 동안 완전히 포위 된 적은 없었다구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네가 이것을 담당하라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의 속죄의 염소처럼 우리 주님처럼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한 사례를, 그것을 실질적으로 당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견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예루살렘이 호위된 쪽으로 향하여 두고 네 팔을 걷어 올려 그것에 대하여 예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동이리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염소의 역할을 하고 또 일인이역이죠. 누워 가지고 예언을 하라.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당한 고통은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말아라. 밤에 죽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가지고 주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선지자들

이 그렇게 고생 해 가지고 세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했고 또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 순교 당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피 위에 물론 예수그리스도의 피 그것 때문에 되었지만 또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그 반석위에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신구약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받아 들이면 축복인데 오늘날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지장 없으면 상관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막 어려울 때 매달리는 것을 보다가 일이 잘 되 가지고 살만 하면 교회를 떠나요 이걸 보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구나. 오히려 그럴 때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교회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아니까 창피하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아니까 창피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으로 가자 좋은 차타고 좋은 집에 살면 알게 뭐냐? 이런 심령으로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도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배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죠. 전에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기록 된 것은 너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교리적인 부분 예언의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교리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예언, 그렇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죠. 이것 듣고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는구나. 바로잡음, 우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개역 성경에는 교리가 빠졌어요. 교리란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리대신에 교회 교리, 교단 교리로 대체해 가지고 교리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건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교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교리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카톨릭에서는 자기들

에게 맞는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교리 공부를 안 시켜요 그냥 설교만 하고 말아버리지 교리 공부를 안 시키니까 뼈대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척추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척추에 오장 육부가 다 매달려 있잖습니까? 척추가 없어지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 가지고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가 나오는 거예요. 똑 같습니다. 양심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이나 두 종류의 사람이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상이 뭐 칠닝키가 영켜있는데 어떠하리. 뭐 이렇게, 그러나 한 사람은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양심시대나 지금 은혜시대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시대에 산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백보좌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 산 사람은 구원 받아요 하늘은 못 가두요 땅에 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세대들이 이 교회 세대들이 옛날 에스겔 시대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간음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 된다고 말씀 하셨고 아버지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세상을 사랑함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 때 바벨론고하얏 시리아에 간음한 저들이나 지금 오늘 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세상과 간음하는 일이나 똑 같은데 깨닫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 한 것처럼 지금 크리스찬들이 깨닫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도 이것을 깨닫지 못 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 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